[미국] 최근 자동차보험료 급격한 인상의 주요 원인

□ **(개요)** 미국 자동차보험료가 역대 가장 가파른 연간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억제를 늦추고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

○ '24년 3월 기준 연간 자동차보험료 상승률은 22.2%로, 3.5%인 연간 소비자물가지수(CPI) 상승률을 약 7배 상회[1)]

○ CPI 항목 중 자동차보험료는 비중이 3%가 채 안 되지만, 큰 오름폭으로 인해 전체 인플레이션 중 0.56%p가 자동차보험료 상승에 기인함[2)]

[그림1] 미국 내 연간 CPI 및 자동차보험료 상승률[3)]

1) 미국 노동통계청
2) 연합인포맥스
3) 뉴욕타임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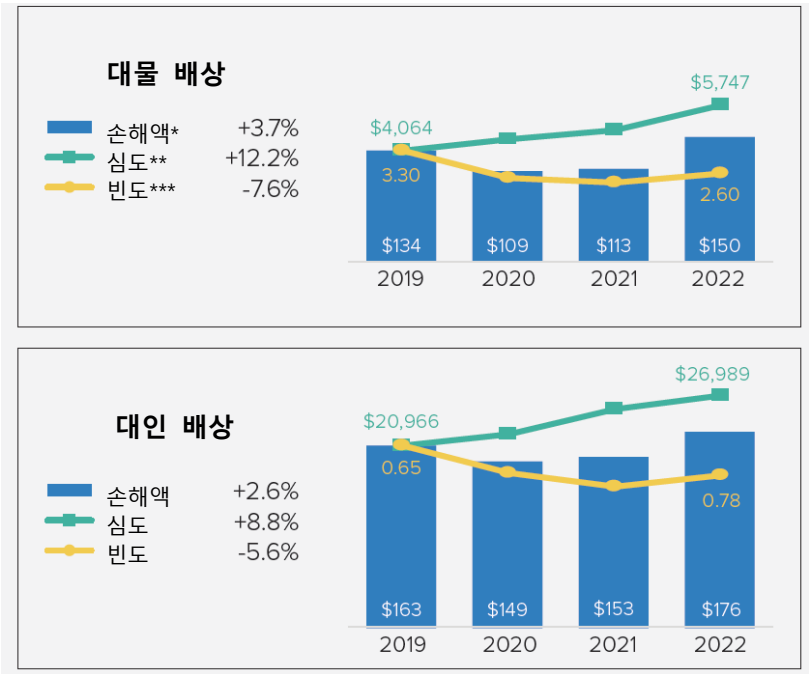
□ **(배경)** 코로나 이후 자동차보험 산업의 손해율 악화와 제도적 요인이 원인으로 지적됨

○ **(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)** 위드코로나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사고 청구 비용이 증가해 자동차보험사 손해율이 21년 3분기 기준 72.1%로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[4)]

- 코로나 이후 교통량이 일상 수준으로 회복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빈도 및 청구 건수 증가

- 또한 신차 및 중고차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, 공급망 차질, 정비공 임금 인상과 함께 각종 고급 장비의 탑재가 늘면서 차량 수리 비용이 비싸짐

[그림2] 개인용 자동차보험 청구 심도 및 빈도 변화[5)]



*손해액: 보험사고 한 건당 보험사에 발생하는 총 손해액
**청구 심도: 보험사고 한 건당 지급된 보험금
***청구 빈도: 유효대수 100대당 청구 건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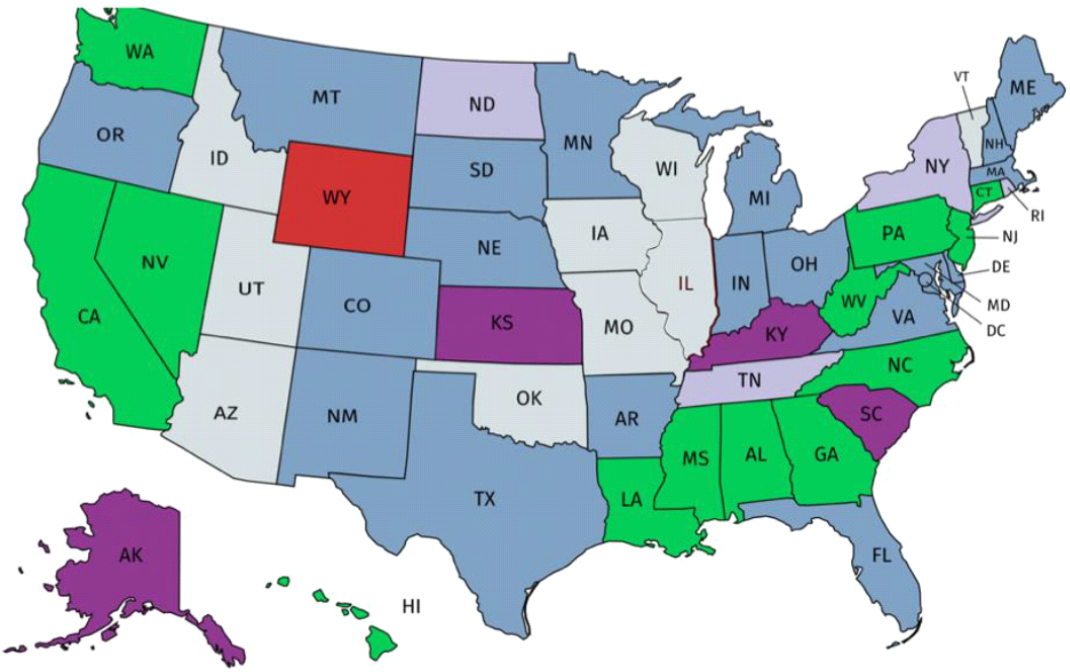
4) 미국 보험정보기구(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)
5) Ibid.

○ **(제도적 원인)** 코로나 기간 동안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사의 수익을 규제했고, 이후 손해율이 악화함에 따라 보험사가 일제히 감독당국에 요율 인상을 신청했지만 승인이 지연됨

- 각 주 보험감독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, 상품 약관 및 요율 등에 관한 규제를 하며,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 시 보험감독청에 요율 신고(rate filing)*를 통해 기초통계를 제출하고 소명해야 함

* 미국 대부분 주에서 자동차보험요율 규제는 사전인가(prior approval) 혹은 사전신고(file and use) 방식으로 운영됨

[그림3] 미국 주별 자동차보험요율 규제(2019년 기준)[6]



Prior Approval	File & Use	Use & File	Limited Flex	Flex	Deregulated
사전인가	사전신고	사후신고	Flex에 비해 제한적 조건	지정 범위 내 자율, 이외 신고	규제 부재

6) 미소비자연맹(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)

- 자동차보험업계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이동 제한으로 늘어난 수익을 제재 받아 총 140억 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할인 또는 환급

- '21년 2분기부터 수익성 회복을 위해 주 감독당국에 요율 인상 신고를 실시했지만, 까다로운 심사 절차와 업무 적체로 '22년 말부터 보험료 인상으로 반영되기 시작